

대학생의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이 상 희[†]

광운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성향변인(특성불안, 낙관성, 강인성),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낙관성과 강인성이 낮을수록 진로장애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불안은 진로태도성숙에 직접 미치는 영향보다 진로장애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진로자기효능감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여학생 집단에서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진로장애의 연구에서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가정하여 제시한 본 연구의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진로장애는 진로태도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으며, 성향변인과 진로자기효능감이 어떤 경로로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에 관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 교신저자 : 이상희,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139-701)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1
E-mail : sanglee@kw.ac.kr

현대사회는 직업의 다양화와 전문화, 기술 문명의 급격한 발달, 사회가치관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진로는 일생을 통한 복잡하고 중요한 과업이 되었다. 특히 대학 시기는 장래의 직업을 준비해야하며, 무엇보다 특정 직업을 선택,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는 대학생들이 당면하는 가장 시급한 고민 문제이다.

진로상담은 내담자가 진로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진로 진행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Gati, Krausz, & Ospiw, 1996)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로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진로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들은 진로와 관련된 내적이고 개인, 심리적인 요인들을 밝혀왔다(Gordon, 1981; Sepich, 1987). 그런데 최근 들어 개인의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진로장애란 진로와 관련된 여러 수행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모든 내적, 외적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변인이다(Fitzgerald, Fassinger, & Betz, 1995). 실제로 개인의 진로발달에서 진로의 선택이나 계획, 수행 등을 어렵게 할 것으로 생각되는 장애요인들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진로발달이나 진로선택 시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장애요인들에 대한 지각을 진로연구와 지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Lent, Brown, & Hackett, 1994).

일반적으로 진로장애는 개인의 적절한 진로발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왔으며, 따라서 진로장애를 지각하는 것은 개인의 진로 선택과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이

해되었다. 그러나 개인이 진로장애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통제감이 약화되거나(Luzzo, 1996), 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Shuttleworth, 1992)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진로장애의 지각과 진로성숙의 관계는 단순한 선형관계로 볼 수 없으며, 다른 여러 가지 변인이 관련되어 있거나, 선정된 집단에 따른 특성차이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자들은 진로장애의 지각이 직접적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LEE, 1994; Luzzo, 1996; Shuttleworth, 1992; Swanson, Daniels, & Tokar, 1996), 여러 변인들을 통하여 복잡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진로장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손은령, 2001). 따라서 진로장애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들은 같은 진로장애를 가질 시라도 개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장애보다는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애가 중요한데, 특정 환경의 효과는 개인의 평가와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Vonderack et al, 1986). 이처럼 '지각된 진로장애'들이 진로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Albert & Luzzo, 1999; Swanson & Woitke, 1997), 대부분의 진로장애 연구는 지각된 진로장애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진로장애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성향을 볼 수 있는데, Scheier와 Carver(1985)는 개인의 장애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

장 중요한 성향이 낙관성이라고 제안하였다. 실제로 낙관성은 심리적 적응(psychological adjustment)과 유의미하게 관련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Scheier & Carver, 1985), 일반적으로 낙관성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cheier & Carver, 1985). 아직까지 낙관성과 진로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지만, 낙관성은 스트레스나 장애에 잘 견딜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이며 다양한 대처 전략의 사용, 풍부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진로 발달과 진로미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Carver & Scheier, 1981). 실제로 낙관적인 학생은 더 많은 진로 계획과 탐험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 많은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Creed, Patton, & Bartrum, 2002). 또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낙관성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의 진로발달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reed, Patton, & Bartrum, 2004).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계획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하여 낙관적인 학생들이 취업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inz, Kelle, wirtzel, & Zinn, 1998). 이처럼 낙관성이 높으면 진로장애에 당면했을 때 본인이 해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할 것이므로, 낙관성은 개인의 진로장애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향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성향변인으로 신경증, 즉 부정적인 정서를 들 수 있다. 신경증은 불안, 슬픔, 죄책감, 분노 같은 만성적인 부정적 정서와, 낮은 자기 존중감 같은 인지, 행동적 특성을 의미한다. 높은 신경증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환경적 위협이나 스트레스에 대하여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있었다(Bolger & Schilling, 1991). 이 중 특성불안은 진로결정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향변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다. 불안은 개인의 진로결정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Hartman & Fuqua, 1983), 진로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대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Harren, 1979). Crites(1974)도 과도한 불안 때문에 효과적인 진로결정과 진로발달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불안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과 관계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런 관련성은 진로 미결정 유형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왔다(Fuqua, Newman, & Seaworth, 1988).

특히 특성불안은 우유부단성이나 만성적 미결정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O'Hare 등(1986)의 연구에서 특성불안은 진로미결정 상태를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으며(O'Hare & Tamburri, 1986), Kimes와 Troth(1974)의 연구에서 특성불안은 진로결정 수준, 만족도 수준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에서 불안이 진로 발달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김봉환, 1997; 김은영, 2001, 홍혜경). 따라서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은 같은 진로장애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더 많은 어려움을 지각하고 더 위협적으로 지각할 것이다. 실제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불안이 진로미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 변인임이 밝혀졌다(Lucas & Wanberg, 1995).

진로장애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

른 성향 변인으로 강인성이 있다. 같은 장애나 어려움에 대하여 다른 사람보다 영향을 적게 받는 개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Kobasa(1979)는 이러한 성격특성을 강인성이라고 명명하였다. 강인성은 강한 스트레스 저항과 관련되어진 관여(Commitment), 도전(Challenge), 통제(Control)로 구성되는 성향특성이다. 강인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역경이나 장벽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상황을 덜 위협적이며, 극복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Rhodewalt & Zone, 1989). 따라서 같은 진로장애에 대해서 개인이 가진 강인성에 따라 도전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위협으로 평가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강인성이 낮은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강인성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덜 긍정적이며 자신의 통제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Rhodewalt & Agustsdottir, 1984). Allred 등(1989)도 강인성이 높으면 위협을 평가하는 반응에서 보다 긍정적인 자기 진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Allred & Smith, 1989). 따라서 진로장애 상황에서도 개인이 가진 강인성의 수준에 따라 주어진 진로장애에 대한 지각이 달라질 수 있다. 강인성이 높으면 진로장애를 위협이라기보다는 도전으로 지각할 것이며, 강인성이 낮으면 같은 진로장애라도 더 위협적이고 어려운 것으로 지각할 것이다.

또한 진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 밝혀져 왔는데, 지각된 진로장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효능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정도를 언급한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 기대는 행동이나 행동변화의 중요한 중재자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은 특별히 ‘진로자기 효능감’으로 개념화되었으며, 진로결정과 학업 성취, 진로결정 의사 및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Hackett & Lent, 1992; Lent, Brown, & Hackett, 1994; Luzzo, James, & Luna, 1996).

연구 결과들은 사람들이 지각하는 진로장애는 자신의 진로 자기효능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Hackett 등(1996)은 진로 장애와 방해물에 대처하기 위한 강한 진로 자기효능감은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 같은 장애 요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 있다고 보고 했다(Hackett & Bryars, 1996). 이은경(2001)도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 대처하고 진로 선택이나 목표, 혹은 진로 관련 행동을 수행하는데 진로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진로 발달을 방해하는 어려움에 대한 지각은 진로 자기효능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만약 어떤 상황이 장애로 지각되지만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지각한다면, 그 상황은 더 이상 장애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즉 진로장애는 직접적으로 진로발달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진로 효능감에 따른 평가를 거쳐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Bandura(1986, 1997)는 진로 자기효능감을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 사이의 매개요인으로 가정하였다. 이처럼 진로 자기효능감이 진로장애의 지각과 진로발달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다면, 진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진로장애를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진로 자기효능감이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을 매개하는 변인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진로장애의 지각에 성차가 있다는 연

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 되었는데, Swanson 등(199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장애의 하위유형들에서 일관적인 성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여러 진로장애들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장애요인들은 주로 다중역할과 관련된 장애였으며, Luzzo(1995)도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과 관련된 장애요소를 더 많이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Lent 등(1994)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진로장애를 지각한다고 보고하여 진로장애에 성차가 있음을 지지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진로장애에 성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하여 왔고,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많은 진로장애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성차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손은령(2001)은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진로장애를 더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 하였다. 한편 김은영(2001)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장애가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하였다. 이명숙(2003)은 나이문제와 경제적인 장애요인을 제외한 전반적인 진로장애의 지각이 여학생에게서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직업정보부족, 나이문제, 타인갈등, 경제적 어려움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의 연구결과

들로는 진로장애의 성차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진로장애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성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남녀를 구분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진로장애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향적 요인들의 효과를 살펴보고,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매개변인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불안과 낙관성, 강인성은 진로장애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낙관성과 강인성이 낮을수록 진로장애가 높게 지각될 것이다. 둘째,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각된 진로장애는 진로자기효능감에 따라 진로태도성숙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 법

대상

서울 및 근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7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 중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 체
남학생	108명(10.5)	121명(11.8)	118명(11.0)	136명(13.3)	483명(47.2)
여학생	109명(10.6)	151명(14.7)	130명(12.0)	151명(14.7)	541명(52.8)
전 체	217명(21.2)	272명(26.6)	248명(24.2)	287명(28.0)	1024명

지 않거나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48명을 제외한 총 1024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대상의 학년 및 성별분포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도구

특성불안

개인의 특성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Gorsuch 및 Lushene(1970)가 개발한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중 특성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특성불안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만연되어 있는 개인의 긴장, 걱정의 성향정도를 나타내주며, 일반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를 기술하게 하는 것으로 4점 척도의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존중의 상실이 문제될 때,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정서적 흥분, 높은 강도의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특성불안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낙관성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의 생활지향검사 개정판(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을 조하나(200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LOT-R은 기질적 낙관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기질적 낙관성이란 미래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보편적인 기대감을 의미한다. LOT-R은 기질적 낙관성을 단일차원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5점 척도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낙관성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강인성

강인성을 측정하기 위해 민병배(1990)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강인성 척도를 토대로 노연희(1998)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척도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몰입, 통제, 도전의 3개 하위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강인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강인성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2로 나타났다.

진로장애

우리나라 대학생이 진로결정시 지각하는 어려움의 내용과 지각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탁진국 등(2003)이 개발한 한국대학생 진로결정 장애검사를 사용하였다. 한국대학생 진로결정 장애검사는 직업정보부족 요인(6문항), 자기명확성 부족 요인(4문항), 우유부단한 성격요인(4문항), 필요성인식 부족 요인(4문항), 외적장애 요인(4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진로장애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장애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진로자기효능감

Betz와 Voyten(1997)이 구성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를 이은진(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목표선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등의 5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단축형의 근간이 된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척도(CDMSES: Taylor & Betz, 1983)는 진로 결정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90이었다.

진로태도성숙

진로성숙을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태도성숙 검사는 결정성 차원(10문항), 준비성 차원(10문항), 독립성 차원(9문항), 목적성 차원(8문항), 확신성 차원(10문항)의 5개 하위 영역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태도성숙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분석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 분석을 위하여 SPSS 12.0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모형검증

을 위하여 AMOS 4.0을 사용하였다. 경로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χ^2 검증을 이용하였다. 또한 최악의 모형에 비해 이론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NNFI; Non-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GFI(Goodness of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참고로 이론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홍세희, 2000).

결 과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상관관계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표 2에 제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특성불안으로,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높은 특성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변인들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표 2.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은 표준편차

변 인	남자	여자	성별(t값)
특성불안	56.5(12.4)	59.4(12.2)	13.67***
낙관성	21.6(3.9)	21.9(3.8)	1.39
강인성	35.1(5.3)	34.8(4.4)	.87
진로자기효능감	83.0(13.8)	82.6(12.7)	.17
진로장애	54.1(14.5)	53.6(12.9)	.34
진로태도성숙	108.2(14.8)	109.5(14.1)	2.04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남자, 여자 대학생 집단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구분 변인	남자						여자					
	1	2	3	4	5	6	1	2	3	4	5	6
1 특성불안	1.00						1.00					
2 낙관성	-.58***	1.00					-.59***	1.00				
3 강인성	-.45***	.50***	1.00				-.34***	.40***	1.00			
4 진로장애	.54***	-.39***	-.41***	1.00			.55***	-.41***	-.37***	1.00		
5 진로자기효능감	-.48***	.42***	.45***	-.54***	1.00		-.44***	.41***	.42***	-.67***	1.00	
6 진로태도성숙	-.46***	.42***	.53***	-.62***	.61***	1.00	-.47***	.37***	.38***	-.63***	.58***	1.00

주. * $p < .05$ ** $p < .01$ *** $p < .001$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을 남학생, 여학생의 집단으로 나누어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성향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특성불안, 낙관성, 강인성은 남학생,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서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특성불안은 낙관성, 강인성과 높은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낙관성과 강인성은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성향변인과 진로자기 효능감의 상관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성향변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상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변인과 진로장애와의 상관도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애와 진로자기 효능감도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태도성숙과 측정변인들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변인들은 진로태도 성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의 관계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성향 변인들이 진로장애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장애는 진로자기효능감을 거쳐 진로태도 성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모형이 설정되었으며, 이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각 집단에 따른 연구모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경로의 직접, 간접 계수가 산출되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고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성과 경로계수, 그리고 직접, 간접효과에 관한 표가 집단에 따라 제시되었다.

남자대학생 집단에 대한 경로검증

남학생 집단의 진로태도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모형과 직접, 간접, 전체 효과를 알아보았다.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그 효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진로장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향변인은 특성불안으로 .42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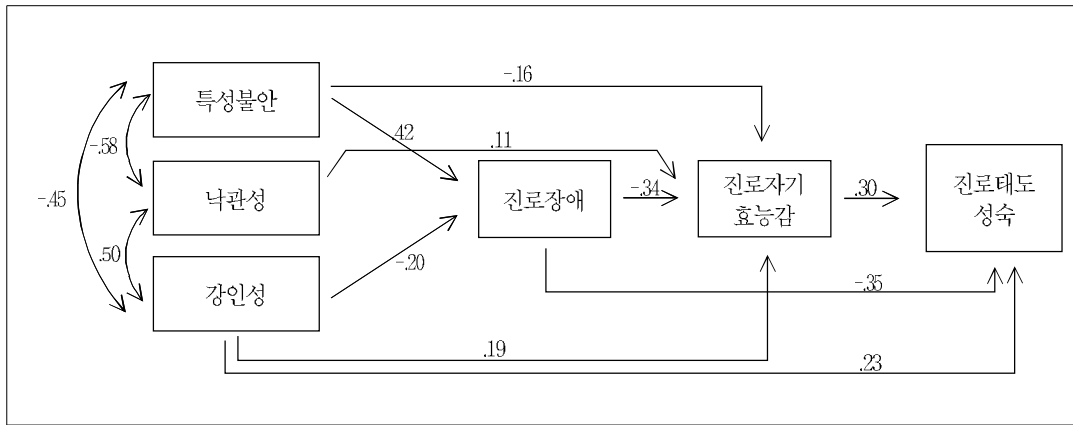


그림 1. 남자 대학생의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경로

표 4. 남학생 집단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들

	χ^2	df	p	GFI	NFI	TLI	CFI	RMSEA
남학생모형	2.850	3	0.415	0.998	0.998	1.00	1.00	0.00

있었으며, 강인성도 진로장애에 -.20의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낙관성은 -.05로 진로장애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진로자기 효능감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진로장애로 -.34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성불안은 직접적 영향은 -.16, 간접 영향은 -.14로 진로자기 효능감에 전체 -.30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강인성은 직접 효과 .19와 진로장애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 .07로 진로자기효능감에 전체 .25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낙관성은 직접효과 .11과 진로장애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 .02로 진로자기효능감에 전체 .12의 영향을 미쳤다. 진로태도성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진로장애였으며, 직접효과 -.35와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10으로 진로태도성숙에 전체 -.45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은 강인성으로 강인성은 직접

효과 .23과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14의 간접적 영향을 미쳐 진로태도성숙에 전체 .37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진로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 성숙에 .30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성불안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1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가 -.24로 전체 -.23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낙관성은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05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진로장애와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한 .06의 간접효과를 합쳐 진로태도성숙에 전체 .11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남자 대학생 집단에 대한 경로모형의 적합도가 표 5에 제시되었다. 남자대학생의 경로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2.850$, 자유도(df)=3, $p=0.415$, GFI=0.998, NFI=0.998, TLI=1.00, CFI=1.00, RMSEA=0.00의 적합지수를 얻었다. 적합지수는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남자대학생 집단에 대한

표 5. 남학생, 여학생 집단 경로모형의 직접, 간접, 전체 효과

종속변인	예언변인	남 학생				여 학생			
		직접	간접	전체	R ²	직접	간접	전체	R ²
진로장애	특성불안	.42***	-	.42	.32***	.45***	-	.45	.35***
	낙관성	-.05	-	-.05		-.07	-	-.07	
	강인성	-.20***	-	-.20		-.19***	-	-.19	
진로자기 효능감	특성불안	-.16**	-.14	-.30	.39***	-.02	-.25	-.26	.49***
	낙관성	.11*	.02	.12		.11**	.04	.15	
	강인성	.19**	.07	.25		.16***	.11	.27	
	진로장애	-.34***	-	-.34		-.55***	-	-.55	
진로태도 성숙	특성불안	.01	-.24	-.23	.54***	-.13**	-.22	-.35	.46***
	낙관성	.05	.06	.11		.01	.06	.07	
	강인성	.23***	.14	.37		.11**	.13	.24	
	진로장애	-.35***	-.10	-.45		-.36***	-.13	-.49	
	진로자기효능감	.30***	-	.30		.23***	-	.23	

주. * $p < .05$ ** $p < .01$ *** $p < .001$

경로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여자대학생 집단에 대한 경로검증

여학생 집단의 진로태도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모형과 직접, 간접, 전체 효과를 알아보았다. 경로모형은 그림 2와 같으며 그 효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진로장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향변인은 특성불안으로 .45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강인성도 진로장애에 -.19의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낙관성은 -.07로 진로장애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진로자기 효능감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진로장애로 -.55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성불안은

직접적 영향은 -.02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 영향은 -.25로 진로자기 효능감에 전체 -.26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강인성은 직접 효과 .16과 진로장애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 .11로 진로자기효능감에 전체 .27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낙관성은 직접효과 .11과 진로장애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 .04로 진로자기효능감에 전체 .15의 영향을 미쳤다. 진로태도성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진로장애였으며, 직접효과 -.36과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13으로 진로태도성숙에 전체 -.49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은 특성불안으로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3, 진로장애와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22로 전체 -.35의 영향을 미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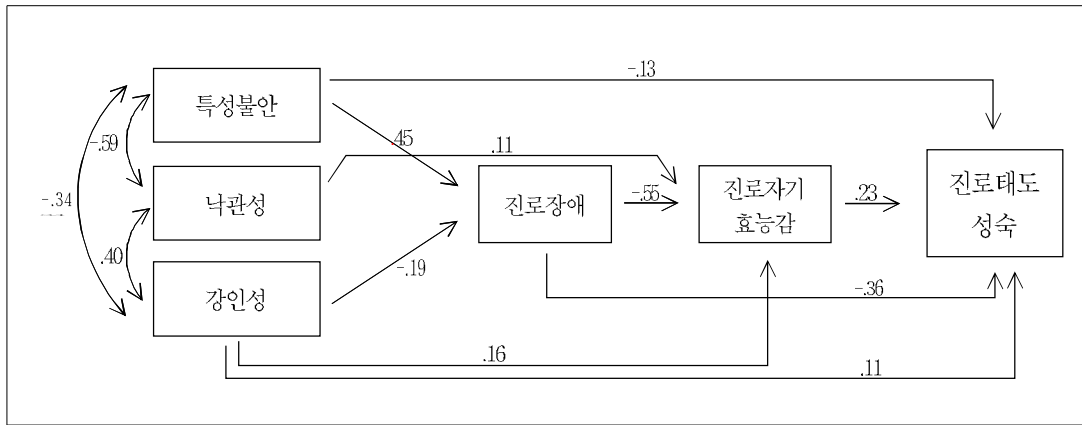


그림 2. 여자 대학생의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경로

표 6. 여학생 집단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들

	χ^2	<i>df</i>	<i>p</i>	GFI	NFI	TLI	CFI	RMSEA
여학생 모형	2.527	3	0.470	0.998	0.998	1.00	1.00	0.00

있었다. 강인성은 직접효과 .11과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13의 간접적 영향을 미쳐 진로태도성숙에 전체 .24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진로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에 .23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낙관성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01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진로장애와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한 .06의 간접효과를 합쳐 진로태도성숙에 전체 .07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자 대학생 집단에 대한 경로모형의 적합도가 표 6에 제시되었다. 여자대학생의 경로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2.527$, 자유도(*df*)=3, $p=0.470$, G.F.I=0.998, NFI=0.998, TLI=1.00, CFI=1.00, RMSEA=0.00의 적합지수를 얻었다. 적합지수는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여자대학생 집단에 대한 경로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향변인들이 진로장애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지각된 진로장애가 진로자기효능감에 따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성향변인과 진로장애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특성불안과 강인성은 진로장애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낙관성은 진로장애의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대학생의 진로장애 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향변인은 특성불안과 강인성이며, 낙관성의 영향은 비교적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전의 연구들은 특성불안이 진로 미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 하여 왔으며(Fuqua, Newman, & Seaworth, 1988; Hartman & Fuqua, 1983; Kimes & Troth, 1974; O'Hare & Tamburri, 1986), 높은 수준의 특성불안은 개인의 효과적인 진로발달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도 특성불안이 진로태도성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특성불안은 진로장애의 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것이 진로자기효능감을 거쳐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특성불안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진로장애와 진로자기효능감을 거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특성불안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단지 직접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기보다 좀 더 복잡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이 진로장애와 관련하여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낙관성이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이 특성불안과 강인성처럼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우선 성향변인들과 진로장애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특성불안과 진로장애의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인성과 낙관성도 진로장애와 비슷한 수준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성불안, 강인성,

낙관성 간의 상관도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낙관성이 진로장애의 지각에 미치는 효과가 강인성보다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다른 성향변인들과 낙관성의 상관이 높기 때문에 다른 성향변인들이 투입되면서 낙관성이 진로장애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다른 두 변인을 통제하고 낙관성이 진로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낙관성이 진로장애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따라서 낙관성이 진로장애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적게 나온 것은 특성불안, 강인성과의 다중 공선성 문제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낙관성은 진로 발달과 진로 미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강인성은 장애나 역경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덜 위협적으로 지각하고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성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강인성의 특성들이 진로장애와 관련되어 개인의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강인성은 개인의 진로장애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진로태도성숙과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인성을 구성하고 있는 특성인 관여, 도전, 통제가 모두 개인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London, 1997)임을 시사해준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삶의 다양한 상황에 자신을 몰입시키는 관여, 자신이 상황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통제, 생활사건을 위협이나 부담으로 지각하기보다 발전을 위한 기회라고 지각하는 도전은 모두 개인의 진로발달에 도움

이 되는 특성들로 이해될 수 있다(London, 1997). 본 연구의 결과로 특성불안, 강인성, 낙천성 모두가 개인의 진로장애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진로장애를 다룰 때, 이러한 성향적 변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개입하는 것이 전략상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진로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진로자기효능감에는 특성불안, 낙관성, 강인성, 진로장애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진로자기효능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든 집단에서 진로장애였으며, 따라서 지각된 진로장애가 높을수록 진로자기 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진로장애가 진로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된 모형의 경우 남학생은 성향변인과 진로장애가 진로자기 효능감의 39%를 설명하고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49%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것은 본 연구의 모형이 여학생 집단의 진로자기효능감을 설명하기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는 상담자가 내담자들의 진로자기효능감을 살필 때, 성차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담자는 진로상담에서 진로장애를 다룰 때, 진로장애와 진로자기 효능감이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더욱이 여학생의 경우는 진로장애의 지각이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전의 연구들은 진로장애와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차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Creed 등(2004)의 고등학생 최고 학년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오히려 남학생의 경우에 진로장애가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장애와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 성차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성차가 나타나는 차이와 영향에 관해서는 추후에 확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대학생과 고등학생에 따른 대상의 차이인지, 문화의 차이인지, 표집 과정의 문제인지 등에 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 집단에서는 특성불안, 낙관성, 강인성, 진로장애가 모두 직접적으로 진로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중 특성불안은 직접적인 영향보다 간접적인 영향이 진로자기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진로장애, 강인성, 낙관성만이 진로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성불안은 진로자기 효능감에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성향변인이 진로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도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가설처럼 성향변인들은 직접적으로 진로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진로장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언급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사이의 매개변인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진로태도성숙에 가장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은 모든 집단에서 진로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장애, 강인성은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특성불안은 간접적인 영향만이 유의미했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장애, 강인성, 특성불안이 모두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는 진로태도성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진로장애와 강인성이었는데, 여학생의 경우는 진로장애와 특성불안으로 밝혀져 두 집단에 차이가 있었다. 우선, 연구 결과로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매개변인으로 가정되었던 진로자기효능감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결과는 지각하는 진로장애는 개인의 진로자기효능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 Bandura(1997)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진로장애에 접근할 때 진로자기효능감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진로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지각한 진로장애의 부정적인 효과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해석할 때 성차와 관련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연구들은 남자와 여자의 진로발달에 차이가 있음을 제안해 왔었고,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직업적으로 성숙되어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었다(김현옥, 1989; 이기학, 1992; Parr & Neimeyer, 1994). 본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높은 진로태도성숙을 보여 이전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차는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전반적인 차이일

수도 있지만,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을 구별하여 두 집단의 경로모형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았다. 그 결과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경로와 효과 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진로장애와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 외에도, 중요한 차이를 언급해보면, 남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성향변인은 강인성이었고, 여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성향변인은 특성불안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강인성이 가지는 효과에 성차가 있다(Holahan & Moos, 1985; Schmied & Lawler, 1986)는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남자인 경우 여자보다 강인성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본다는 것인데, 이것은 강인성이 가진 특성 중 통제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진다. 강인성의 통제는 내적 통제소재와 부분적으로 같은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데, 연구들은 내적 통제소재가 여자들보다 남자들의 위협 지각에 더 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Toves, schill, & Ramanaiah, 1981). 이러한 이유로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도 남자에게는 강인성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미치는 성향변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진로상담시에 특히 진로장애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성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추후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성차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 필요한 제안을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

으로 시행되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진로장애에 대한 경우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결과가 다양한 경우의 진로장애에서도 설명력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남학생집단과 여학생 집단에 따라 변인들의 경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진로장애가 어떻게 진로발달에 연관되는지와 이 과정에서 성차가 나타나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일반화될 수 있는 성차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성향변인들이 진로장애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된 성향변인은 특성불안, 강인성, 낙관성 세 가지로 한정되었으며, 세 변인들 사이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변인들을 포함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진로장애를 다루는 진로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진로장애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성향변인들과 진로자기효능감의 영향도 확인되었다. 현재 대학 상담소를 찾는 많은 학생들은 진로문제를 주요 문제로 호소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진로에 관한 도움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진로장애는 연구의 역사가 짧고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진로상담에서 진로장애를 다루주는 프로그램이나 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성향변인이나 진로자기효능감을 다루어 주는 진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학생들의 진로장애 극복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영 (2001).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 (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노연희 (1998). 실직자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화 반응 및 대처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병배 (1990). 관상동맥성 심장병과 성격요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학 (1992). 개인적 특성이 직업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하나 (2002). 낙관성 수준에 따른 우호/적대 상황에서의 대인관계도식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

- 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홍혜경 (1998).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lbert, K. A., & Luzzo, D. A. (1999). The role of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 431-436.
- Allred, K. D., & Smith, T. W. (1989). The hardy personality: cognitive and physiological responses to evaluative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57-266.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
- Bolger, N., & Schilling, E. A. (1991). Personality and the problems of everyday life: the role of neuroticism in exposure and reactivity to daily stressors. *Journal of Personality*, 59(3), 355-386.
- Carver, C. S., & Scheier, M. F. (1981). *Attention and self regulation: A control 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New York: Springer-Verlag
- Creed, P. A., Patton, W., & Bartrum, D. (2002). Multidimensional Properties of the LOT-R: Effects of Optimism and Pessimism on Career and Well-Being Related Variables i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10(1), 42-61.
- Creed, P.A., Patton, W., & Bartrum, D. (2004). Internal and External Barriers, Cognitive Style, and the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of Focus and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30(4), 277-294.
- Crites, J. O. (1974). Career counseling: A review of major approach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3), 3-23.
- Fitzgerald, L. F., Fassinger, R. E., & Betz, N. E. (1995). Theoretical advances 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 B. Walsh & S. H. Osipow(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67-110).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 Fuqua, D. R., Newman, J. L., & Seaworth, T. B. (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2), 154-158.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 Gordon, V. N. (1981). The undecided studen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433-439.
- Hackett, G., & Bryars, A. M. (1996). Social cognitive theory and the career development of African American wome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322-340.
- Hackett, G., & Lent, R. W. (1992). Theoretical advances and current inquiry in counseling

- psychology. In S. D. Brown & R. W. Lent, Jr.(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pp. 419-452). New York: Wiley.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 - 33.
- Hartman, B. W., Fuqua, D. R. (1983). Career indecision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A reply to Grites. *The School Counselor, 30*, 340-349.
- Holahan, C. J., & Moos, R. H. (1985). Life stress and health: Personality, coping, and family support in stress resis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739-747.
- Heinz, W. L., Kelle, U., Wirtzel, A., & Zinn, J. (1998). Vocational training and career development in Germany: Results from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2*, 77-101.
- Tak, J. K.,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328-345.
- Kimes, H. G., & Troth, W. A. (1974). Relationship of trait anxiety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277-280.
- Kobasa, S. C. (1979).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An inquiry into har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11.
- Lee. J. I.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lf-efficacy expectations and career decision status at the college level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49.
-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25-38.
- Lucas, J. L., & Wanberg, C. R.(1995). Personality correlates of Jones' three dimensional model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315-329.
- Luzzo, D. A. (1995).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319-322.
- Luzzo, D. A.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 239-248.
- Luzzo, D. A., James, T., & Luna, M. (1996). Effects of attributional retraining on the career beliefs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415-422.
- O'Hare, M. M., & Tamburri, E. (1986). Coping, Anxie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54-264.

- Parr, J., & Neimeyer, G. J. (1994). The effects of gender, construct type, occupational information, and career relevance on vocational differenti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127-133.
- Rhodewalt, F., & Agustsdottir, S. (1984). On the relationship of hardiness to the Type A behavior pattern: Perception of life events versus coping with life even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8*, 211-223.
- Rhodewalt, F., & Zone, J. B. (1989). Appraisal of life change, depression, and illness in hardy and nonhardy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1), 81-88.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63-1078.
- Schmeid, L. A., & Lawler, K. A. (1986). Hardiness, Type A behavior, and the stress-illness relationship in working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218-1223.
- Sepich, R. T. (1987). A review of the correlates and measurem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4*(1), 8-23.
- Shuttleworth, C. L. (1992). The effects of perceived barriers on College women's occupational cho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Spielberger, C. D., Gorsuch, R. J., & Lushene, R. E. (1970). *STAI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 Swanson, J. L., Daniels, K. K. (1994). *The relation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raw data,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 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31-450.
- Toves, C., Schill, T., & Ramanaiah, N. (1981). Sex differences,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vulnerability to life stress. *Psychological Reports, 49*(2), 508.
- Vonderack, F. E., Lerner, R. M., & Schulenberg, J. E. (1986). *Career development: A life-span developmental approach*. Hillsdale, NJ; Erlbaum.

원고접수일 : 2001. 11.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6. 4. 6

게재결정일 : 2006. 5. 2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ositional Variables,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Sang-Hee Lee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identified the patterns of variables influencing on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study were dispositional variables(trait anxiety, optimism, hardiness),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trait anxiety and the lower optimism and hardiness, the students reported the higher career barriers. In addition, dispositional variables exerte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through the career barriers more than direct effect. Second, this study identified the mediation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ird, the results on career barriers implied gender-specific effects. Finally, the theoretical model on career attitude maturity was confirmed with dispositional variables,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ey words : *dispositional variables,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